

정부, 쇠고기 '추가협상' 의미와 과제

'춧불 민심'에 첫 카드...美 설득 난제

“사실상 재협상” 의지 표명

'30개월 표시'美 벌써 난색

정부가 미국 측과 쇠고기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쇠고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종훈 외교교통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오전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미국과 추가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미국 측과 쇠고기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수입 금지에 대한 민간자율규제라는 거리의 춧불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주변에서는 정부가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협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미국 측과 협상에 나선 것은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추가협상 쉽지 않을 듯=하지만 추가 협상은 난항

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보증을 위해서는 사실상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도 허용돼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뒤집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30개월 미만 유통 표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증은 연방 수의사가 수출검역증에 유통을 표시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한·미 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을 뒤집는 게 될 수 있어 미국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 농무부는 30개월 유통 표시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증해달라는 우리 측 제의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 기존 협정문에 손을 대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쇠고기 추가협상이 한·미간 통상·외교 등 다른 분야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답답한 MB, 쇠고기 정국 해법 고심

'쇠고기 정국' 타개를 위한 국정쇄신책 발표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원만한 대책으로는 상난 민심의 춧불을 끌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특단의 해법 마련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이 대통령은 재협상 수준의 추가협상으로 쇠고기 정국을 정면 돌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추가협상의 골자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라는 점에서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재협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 협상이라는 명칭은 미국 측의 반발과 외교 관계 등을 감안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곧 미국에서 귀국하는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의 쇠고기 협의 내용과 함께 13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귀국적인

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돌탄 상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쇠고기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양해를 전제로 추가협상 결과를 '재협상'으로 표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대폭적인 인적쇄신으로 쌓인 민심을 달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 추가협상 신중 반응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와 관련, 수입 재개협상을 둘러싸고 한국 내 여론이 점점 더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와 업계 그리고 의회에서 원칙적으로는 재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자율규제 방식으로 단계적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부시 자율규제 해법 제시=미 행정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한미통상문제와 관계된 주요 핵심 인사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콘잘로 갈레로스 국무부 부대변인은 11일 한국 의회대표단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관리들과 접촉한 것과 관련, “그들이 쇠고기

재협상에 “NO” ‘자율규제’ 유도

문제를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 강경·이해 흔재=의회에는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행정부와는 달리 재협상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과 더불어 신뢰를 쌓기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흔재돼 있다.

쇠고기벨트 지역인 몬태나 주 출신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정과 관련, “공은 한국으로 넘어가 있다”며 “우리는 합의를 체결했고 양측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공화당 존슨(사우스다코타) 의원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Table with 2 columns: Year and Event. Title: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관련 주요 일지. Lists various trade events from 2003 to 2008.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낙내영교육학) featuring a cartoon cat and text about basic problem-solving classes.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낙내영교육학) featuring a table of course schedules and fees.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낙내영교육학) featuring a cartoon cat and text about English and math courses.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낙내영교육학) featuring a cartoon cat and text about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낙내영교육학) featuring a cartoon cat and text about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management.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낙내영교육학) featuring a cartoon cat and text about public relations and administrative courses.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낙내영교육학) featuring a cartoon cat and text about public relations and administrative courses.